맷집세진 삼성·SK, 불황때 '초격차 전략' 中·日 따돌려

〈하이닉스〉

韓주력산업이 살아난다

›› 1면 '불황터널 마침표'서 계속

3분기부터 D램 수요 회복 국면
삼성 내년 반도체 99% 증가 전망
미래성장동력 시스템반도체 확보

글로벌 메모리시장 치킨게임땐
삼성·하이닉스 등 韓산업 유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D램은 지난 3분기를 시작으로 수요 회복이 나타났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D램 업황 개선에 더해 낸드 가격 상승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99%나 늘어난 27조원으로 지난해 '슈퍼 사이클'에 근접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국산 메모리가 회복하는 데에는 '초격차'도 큰 영향을 줬다. 올해 6세대 V 낸드와 삼성전자는 3세대(1z) 10나노 D램 양산을 비롯해 무오류 SSD 등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주도권을 굳건히 했다. SK하이닉스 역시 2세대(1y) 10나노 D램 생산을 확대하고 128단 4D 낸드 양산에 성공하는 등 경쟁력 우위를 이어갔다.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으로 파운드리와 센서 사업부 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에도 시동을 건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일부 라인을 이미지센서(CIS) 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탓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시스템 반도체는 진입 장벽이 높은 대신 기술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위기였던 일본 수출 규제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산업 '맷집'을 키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계가 발벗고 나서 '소재 독립'에 한발짝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소재 수급을 더 다변화했고, 위기 대처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미국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가 국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업계도 한국 시장 주목도를 더욱 높였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D램 거래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메모리 수요 증가도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단, 메모리 가격이 낮으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힘이 빠지는 데다가, 자연스러운 '치킨 게임'이 진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오히려 유리한 만큼 국내 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텔이 주력하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성장이 늦춰진다는 데에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은행권 DLF, 원금회복 넘어 수익구간 진입

우리銀, 獨 금리 연계 상품 2.2%

시중은행이 판매해 원금 100% 손실 위기까지 갔던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이 처음으로 수익구간에 진입했다. 해외 주요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KEB하나·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 해외 금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DLF 중 상당수가 2~4%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상품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6호[DLS-파생형]'의 수익률이 2.2%로 최종 확정됐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5월 10일 총 113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로, 만기 평가일은 지난 8일이었다.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행사가격(배리어)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 내외의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84%로, 배리어인 -0.30%보다 높아 수익을 기록하게 됐다. 한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원금 100% 손실 구간인 -0.7%까지 내렸다가 반등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같은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 펀드임에도 만기 하루 차이로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만기가 11일인 DLF 상품은 손실률이 21.5%로 확정됐다. 평가일인 지난 7일 기준으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배리어(-0.25%)보다 낮은 수준인 -0.29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만기가 도래하는 두 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각각 평가일인 14일 -0.33%, 15일 -0.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 2.3%를 확정하게 된다.

이 상품을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상품 가운데 만기가 남은 상품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파운드 이자율 스왑(CMS) 7년물·미국 달러 CMS 5년물 금리 연계 DLF 상품(11월 20일 만기)도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3.5%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기준 미 달러 CMS 5년물 금리가 1.707%, 영국 파운드 CMS 7년물 금리가 0.916%로 상승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미 CMS 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개 상품(약 100억원) 또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상환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 수익률은 3%대 중반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주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 목표"

〈경제부총리〉

文 정부 출범 2년 반 소회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2년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 반 소회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채권형펀드 9000억 줄고 주식형 4000억 늘어

›› 1면 '시중자금 '머니무브''서 계속

안전자산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주식형 펀드는 연 초 이후 설정액이 9864억원 줄었지만 최근 한달동안에는 4263억원 늘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세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미·중 무협협상이 순항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온(Risk-on·위험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은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수급측면에서는 무역분쟁 위험완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반등 가능성에 베팅한 외국인들의 선매도가 금리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당한 여타 투자자들의 손절매와 시장관망이 수급 공백과 가격 공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많이 상승(채권값 하락)할 만한 요인은 많지 않아보인다"면서 "지금은 오르는 금리를 따라 분할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미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미·중 무역합의 기대에 따른 세계 경기 반등 가능성이 위험자산 선호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